

LCD 화면 병풍·양파꽃 표현·실리콘 판화... 나만의 기법

예술 혼 쪼먹는 '썩통'은 가라

작가들 표현 기법 특허 출원 잇따라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는 캔버스 대신 LCD 화폭을 이용한 작품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다. 김홍도의 '목죽도'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그의 LCD 화폭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모나리자가 눈을 깜빡 거린다. 이씨의 독특한 디지털 표현기법에 의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명화 속 주인공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씨는 아트페어 등 국내외 미술 행사에 참여하는 게 두렵기만 하다. 중국 등지에서 그의 창작 기법을 모방한 '썩통 작품'이 전시·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순 중국에서 열린 '중국국제아트페어(CIGE)'에 참여한 그는 LCD 화폭에서 나비가 날아들고, 꽃이 떨어지며 내리는 중국 작가의 미디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자신이 고안한 기법을 그대로 베낀 작품이었지만 중국 미술 관계자들에게 불타나게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 등 국내에서도 3~4명의 작가가 움직이는 LCD 화폭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씨의 기법을 본 뜬 '명화 패러디 CF'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유사 작품이 늘자 이씨는 최근 특허청에 '디지털 8축 병풍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LCD 모니터를 병풍처럼 꾸미는 작업의 독점적인 제작·판매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6월 말 특허가 정식으로 나올 예정이다. 해외 작가들의 모방을 막기 위한 국제특허도 준비 중이다. 이씨와 LCD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SDS의 법무팀이 법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특허가 나오면 중국 등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모방 작품과 작가들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최근 이씨처럼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이씨를 비롯 서양화가 최향, 오이랑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캔버스 가득 양파꽃을 그려 넣어 관심을 받고 있는 최향씨도 지난 3월 지역작가협회로부터 '독특한 재질감에 의한 표현기법'의 저작권을 따냈다.

최씨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이프 등 뾰족한 미술도구로 물감을 찍어 덧칠하는 방법으로 양파꽃의 질감을 살리고 있다. 양파꽃을 그리는 화가들은 국내에 다수 있고, 흔하게 쓰는 소재 자체를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프로 물감을 찍어 질감을 살리는 기법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낸 것이다.

판화 작가 오이랑씨도 지난해 자신이 개발한 실리콘 판화 기법인 '착색



<이이남씨>



<최향씨>



<오이랑씨>



이이남씨가 독창적인 디지털 기법으로 제작한 '목죽도'. 김홍도의 '목죽도'를 LCD 화면에 담아낸 이 작품은 마치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플러머 매이스트 및 이를 이용한 장식품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착색 플러머'는 공업용 소재인 실리콘에 색을 혼합해 다양한 색깔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황토색 등 각종 색깔을 넣은 실리콘을 얇게 펴 말린 뒤 국수처럼 얇게 썰어 다시 실리콘을 이용해 화면에 촘촘하게 붙이는 기법이다.

미술평론가 윤진섭씨는 "중국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모방해서 판매하는 곳이 성황을 이룰 정도로 일반화 돼있다"면서 "작가들은 수십년 간 창작에 열중해 터득한 산물인 표현기법이 한순간에 '도둑'맞을 수 있으므로' 특허 등 법적 안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대·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오늘 '시민문화네트워크 대동한마당'

황량한 도심에 예술의 향기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아파트 옆 썩지공원에 물고기 잡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재미있는 벽화가 새겨져 있다. 음식 담은 옹기는 멋진 의자 변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문화도시공작소 인유'가 예술가, 마을주민들과 함께 만든 것들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해말 '시민문화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것도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추진단이 진행한 공모에 당선돼 6개월간 '시민문화네트워크 사업-3기 불어넣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광주대가 29일 오후 1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등에서 결과 보고회인 '시민문화네트워크

대동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국비와 자체 예산 등 모두 1억1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광주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속사업으로 전개하기 위해 학교 산하협력단 내에 '시민문화네트워크 센터'를 개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모에 당선된 9개 단체가 참여했다. '문화 마을 가꾸기'는 '월산마을 수다방 만들기'(문화행동 S#ARP), '대인시장 프로젝트'(대안공간 북덕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문화난장 펼치기'는 '월산동 노래하는 아이들'(문화행동 S#ARP), '대인시장 난장 프로젝트'(대안공간 북덕방), '양림동 역사문화 유산 가꾸기'(양지종합사회복지관), '운림동 생태마을 꾸미기'(한국다문화교육정책), '화정동 아파트 사랑방'(광주문화유랑단)이 주프로그램이다.

특히 '음악캠프 꾸리기'는 광주대 음악학부가 직접 사업주체자로 참여해 눈길을 모은다. 광주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시민여성합창단'을 조직, 성악 전공 학생들의 1대 1 개인 레슨 등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29일에는 지산동 썩지공원, 계림동 대안공간, 월산동 수다방 등 문화마을 만들기 대상 지역을 답사하며 오후 5시부터는 썩지공원에서 광주여성합창단과 월산동 노래하는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 사업 결과물을 전시 판넬과 영상으로 선보이는 시간도 갖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센터 박종찬 교수는 "이번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참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학교와 문화단체, 시민들이 인력과 예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대 시민문화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한 '문화도시 공작소 인유'가 지산아파트 옆 썩지공원에 설치한 벽화와 옹기 조형물.

산·나무 역동적인 생명의 기운

한국화가 김중경씨 광주신세계갤러리 개인전

자유분방한 필선으로 자연의 모습을 그려오고 있는 한국화가 김중경씨가 30~6월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18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산과 나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생명의 기운을 포착한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그가 주로 관심을 두는 소재는 나무, 풀, 흙, 물, 공기 등이며 화면 가득 이들 소재를 그려넣는 과감한 화법을 선보이고 있다.

파란색의 강렬함을 통해 어지럽게 이어지는 길을 형상화한 '사유의 길'과 작은 화면에서 풀기를 뻗어 꽃을 피운 식물들 그린 '생명-energy2'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김씨는 중앙대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무등미술대전 특선과 동아미술상 등을 받았다.

현재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아일보 미술동우회 회원, 구상전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



'사유의 길'

다. 문의 062-360-1630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여수 출신 김만석씨 위촉

전남도는 28일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로 김만석(45·사진)씨를 위촉했다. 국립극장 공연연출과를 거쳐 정동극장 국악전속 예술단장을 역임한 김 지휘자는 '전통예술무대' 등 400여회의 국악 공연을 기획·연출했다.

여수 출신으로 한양대 국악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성균관대에서 철학박사(예술철학) 학위를 받았다.

김씨는 1990년 '시문학'에 '남이여 강물이 뜰 때도 퍼트립니다' 등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지만 생전에 이렇다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화작가 전원범 교수(광주교대), 양치중 강진문

전남문인협회 심포지엄·문학기행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웅)는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 강진문화원에서 심포지엄과 문학기행을 연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은 '현구 시와 삶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진 출신 김현구 시인(1904~1950)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김현구 시인은 1930년 '시문학'에 '남이여 강물이 뜰 때도 퍼트립니다' 등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지만 생전에 이렇다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화작가 전원범 교수(광주교대), 양치중 강진문

협 회장, 이순자 전남문협 부회장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영랑의 생애'를 주제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영랑생가와 현구생가, 청자도요지, 이순신 유적지 등 강진 및 완도 일대를 둘러보는 문학기행도 실시된다. 참가비 2만원. 문의 062-363-9956. /이미은기자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ing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Cinema, Hami Cinema, and Zeil Cinema. Lists various film titles and showtimes.